

친애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께

2학기 중간고사 이후의 학사운영계획을 학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8월 27일 발송해드린 「2학기 학사운영계획 수정 안내」 이메일에서 안내한 것처럼 중간고사 이후의 대면수업 실시 가능성과 학사운영계획 조정 여부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정부의 방역지침의 변화 및 백신 접종률 등 아래의 상황들을 고려하였습니다.

- 1) 11월 9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 2) 교육부의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방안
 -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협조 요청」(대학학사제도과-12830, '21.10.8.)
 - ※ '21. 10. 8. 0시 기준 (1차 접종) 전 국민 77.6% (접종 완료) 전 국민 56.9%
- 3) 교내 구성원 대상 백신 접종률 설문조사 결과(10월 20일(수) 기준 예상 접종률)
 - * 설문조사 기간: 10월 6일(수) 10:00부터 10월 12일(화) 18:00까지

대상	응답률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안센 포함)
교원	40.50%(전체: 3,259명, 응답: 1,320명)	1,273명(96.44%)	1,169명(88.56%)
직원	68.67%(전체: 747명, 응답: 513명)	495명(96.49%)	398명(77.58%)
대학원생	29.39%(전체: 10,298명, 응답: 3,027명)	2,670명(88.20%)	1,721명(56.85%)

위 상황들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이후인 11월 3일(수)부터의 수업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고사 이전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이더라도, 강의계획서 상 수업유형이 대면 또는 혼합수업일 경우 대면 또는 혼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중간고사 이후 수업운영 방식을 가급적 빨리 학생들에게 공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업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대면수업의 허용 기준 인원은 20명 미만이며, 혼합(대면&비대면)은 병행수업(네모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외 비대면 수업의 운영과 강의실 배정방식 등은 기 안내한 학사운영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나, 성적평가 방식은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오니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계획 안내(대학원)-전체 공지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이후의 학사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백신 접종률 설문조사에 응해준 대학원생 여러

분의 참여에 감사합니다. 남은 2학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 10. 21.

대학원혁신본부장 정재원

Dear KU Graduate Students,

The KU Graduate School kindly inform you the plan for the academic affairs after mid-term exams ends (as of November 3, 2021).

The key points are as below.

1. In the case a "class type" in the syllabus was face-to face, the classes would be conducted in face-to-face classes. And in the case of the mixed (offline and online) classes, the classes would be conducted both offline and online.
2. Thus we strongly recommend you check the class notice or contact the department office if the students registered the face-to-face or mixed classes.

※ Offline classes are only allowed when the students are less than 20 students.

※ Please refer to the Korean version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 The notice wa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The Korean notice prevails the translated one if any conflicts occur in the interpretation.